

# 영암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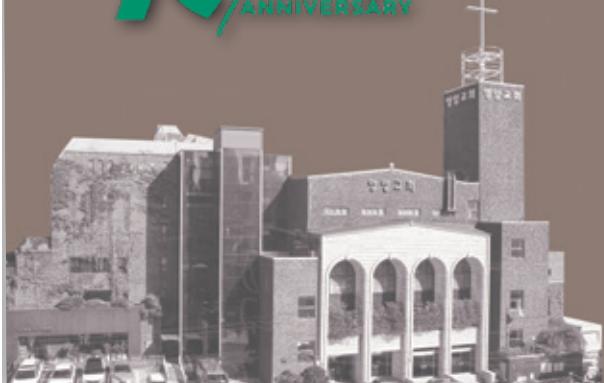
1954

YEARS OF YOUNG-AHM

70  
Years  
ANNIVERSARY

2024

2024 / No.140



# 새로운 길

윤동주 (1917~1945)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놀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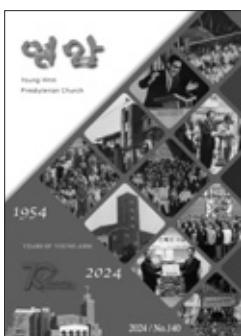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목 차 · 2024 / No.140

02	성시	새로운 길 · 윤동주
04	말씀의 샘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선한 이웃이 됩시다’
06	창립 70주년	기도로 숨쉬다 · 최에스겔 목사
08		5인5색 부흥사경회 설교 요약 · 길학철 장로
12		70주년 행사 화보 모음 · 편집부
14		70주년을 맞은 감회 간증 · 김혜선 권사
16		나의 꿈동산, 영암교회 · 김대영 장로
18		주요 연혁 소개 · 김홍석 장로
22	교육부 여름사역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 김현숙 성도
24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 초등2부 신이언
25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시간 · 중등부 장시예
26		내 인생의 최고의 수련회 · 고등부 한지수
27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 청년공동체 장영훈
28	대외활동	노회 소개 및 부노회장 당선 소감 · 최성기 장로
29		노회 골든벨 후기 · 고등부 남궁솔
30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노회 성경 골든벨 대회를 마치고 · 고등부 한보석
31	교회행사	세례자 간증 · 중등부 안명엽
32		귀하고 유익한 영암학당으로 오세요 · 서경희
34		지단체 찬양대회 · 편집부
36	일대일양육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치며… · 반영환 성도
38		삶의 열쇠이신 예수님 · 권정연 성도
39		내 영혼의 온돌방 · 서여정 성도
40	문화교실 소개	활짝 열린 볼링문화교실 · 기노창 안수진
42	문화칼럼	후회없는 인생의 조건 · 강진구 안수진사
44	새가족 소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46	영암소식	





## ‘희망의 씨앗을 심는 선한 이웃이 됩시다’



유상진 담임목사

영암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몇 년간 제가 관심을 두었던 곳은 영암교회가 위치한 안암동 지역사회였습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성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교회로 오는 빈도는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교회가 위치한 안암동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원거리에서 교회를 오가다보니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인데 선교적 교회란, 교회의 관심사를 교회가 기반한 지역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는 지역과 상관없이 홀로 우뚝선 담장 높은 성벽이 될 것이고, 안암동이라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종교단체로 고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사랑의 쌀을 주민센터에 전달한 이후였습니다. 가장 좋은 철원오대쌀을 나눴건만 복지담당자에게 들은 소식은 의외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정부에서 쌀 교환쿠폰이 나오기 때문에 값비싼 쌀을 전해드려도 별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만 전달하면 끝이라 여기며 만족하던 제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 저는 안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 복지협의체)에 참여하게 되었고, 안암동 주민자치회에도 참여하면서 지역을 배우게 되었고, 지역으로 찾아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적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임을 눈뜨게 되었습니다.

안암동은 현재 15,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안암동 면적의 2/3를 차지하는 고려대학교의 경우 학생 수는 27,000명이 넘습니다. 특이한 점은 1인 가구 비율이 70%로 성북구 관내 20개동 중 가장 높고, 1인 가구 구성원의 85% 정도는 청년입니다. 청년으로 구성된 1인 가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립 은둔입니다. 발굴 자체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고립 은둔 청년을 사회로 다시 적응하게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12월6일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2022년 통계로 서울에는 13만명, 전국에는 62만명의 고립 은둔 청년이 있는데 이들이 고립된 이유는 실직, 취업실패, 심리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이었고

이들은 주로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왕따 등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밥을 굶지 않는 시대에 고립 은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웃이 이웃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시대, 안암동 어딘가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홀로 외로이 고립되고 은둔하는 청년이 있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12월8일 영암교회는 창립70주년을 맞아 고립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손길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고립 은둔 청년에게 따스한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아울러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마을에서 선한 이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Y**





## 기도로 숨쉬다



최에스겔 목사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8월 19일(월)부터 11월 10일(창립기념주일)까지 주일을 70일동안 전교인 기도 릴레이가 진행되었다. 이번 기도 릴레이에는 두 가지 형태로 영암의 온 교우들이 중보기도 하였는데, 하나는 영암교회에 속한 70개의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였고, 다른 하나는 70인의 중보기도 용사들이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70일 동안 중보 기도하는 것이었다.

먼저 70개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제직부서와 교육부서, 교구와 남녀선교회, 찬양대와 교직원,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70개 공동체의 기도제목 3가지를 가지고, 70일 동안 새벽기도회를 통해, 온 교우들이 집중해서 기도하였다. 이를 통해, 내가 속한 부서와 관련된 공동체만이 아닌, 영암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기억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교회가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특별히 70개의 각 공동체 가운데 한 분이 새벽기도회에 대표 기도로 참여하였고, 새벽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나와 특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공동체들도 있었다. 그 밖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시간 유튜브로 기도릴레이에 참여한 성도들도 많았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온 교우가 함께 기도로 숨을 쉬는 영적인 습관이 이번 전교인 기도 릴레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리고 70인의 기도 용사들은 각 가정에서 받은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서, 기도파트너로 선정된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중보기도자와 기도 대상자는

비공개로 매칭을 진행하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도하는 사람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했다. 전교인 기도 릴레이의 마지막 날 70일차에는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로, 온 교우들이 영암교회를 위한 아래의 3가지 중보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였다.



1. 영암교회가 교회 창립의 세 가지 정신인 복음적인 교회, 현대적인 교회, 초대 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도록 2. 영암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기도로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3. 영암교회가 소모임을 통해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로써 영암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다른 거창한 행사나 사역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말씀(상반기 말씀백반)과 기도(하반기 기도릴레이)에 집중함으로, 교회공동체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Y**



# 5인5색 부흥사경회 설교 요약



길학철 장로

마음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귀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요약정리하는 습관을 이어왔는데, 이번에 70주년

부흥사경회 설교 요약을 부탁 받고,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한

료된 후,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바로 묘비에 적혀 있는 이러한 문구를 보고, 감동을 받아 남편인 빌리 그레이엄에게 부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공사 중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시련을 이기지 못해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내가 공사를 하면, 이해해 달라고 하지만 남이 그러하면 빨리하고 재촉합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사중이라는 이야기이겠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마지막 숨을 멎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공사중인 것 같습니다. 내 삶도 그렇고 다른 이의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 1. 1차(5/10) 가정의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예스, 위대한 작품(고린도후서 1:20, 마태복음 19:4~6)

홍인종 목사

– 장로회신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 희망나무(장신상담)센터 센터장



오늘은,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부인되시는, 루스 벨 그레이엄 여사의 비문에 적혀 있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

다. 루스벨 그레이엄 여사가 인생을 건설공사로 생각하게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Under Construction.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

내 삶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들이 모나고 조급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한 나를 지금까지 인내해 주었기에 가능했음을 다시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 빚어지고 있는 피조물이며 또한 작품이기에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좀 부족하고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을 때에,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가고 있는 작품이요 피조물임을 다시금 깨달을 때, 좀 여유있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날, 가정이 무너짐으로 발생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곳이

며, 그 사랑을 배워 나가는 곳이기에 더 없이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그 사랑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 2. 2차(6/14) 선교와 부흥

###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요나서 4:1~11)

박윤길 목사

– 인도네시아 선교사

– 인도네시아 참빛교회 담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피하고 짜증이 났고 반발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설전에 가까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님 이십자가에서 못박혀서 돌아가시는 일은 결코 안된다고 강력하게 항변하는 베드로의 장면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16:21~23). 1~4절 까지의 제목을 붙인다면 “요나의 성냄”입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 앗수르의 중심도시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5~11절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설득 방법은 이틀동안에 걸친 실물교육을 통한 단계별 학습이었습니다. 1단계는 박넝쿨을 예비하여 뜨거운 햇빛을 가리자,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2단계는 별레가 박넝쿨을 끊아먹고 뜨거운 동풍이 일자, 요나가 혼미하여 죽기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하루동안의 잠시 유익을 준 박넝쿨을 심히 아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니느웨에 사는 십이만 여명의 목숨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공통점은 각기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비록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었지만 니느웨와 심지어 가축까지도 아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명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포수처럼 이 땅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쏟아붓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라고 우리들에게 애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 증거의 삶으로 뛰어 들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 3. 3차(9/6) 소그룹

### 살아있는 성도! 부흥하는 교회!(사도행전 2:41~47)

강명옥 전도사

– 국제제자훈련원 부원장

– 사랑의교회 전도사

사람은 누구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이 교회로 보내서 이곳에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성도 한사람 한사람은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영혼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정이 아프거나, 일터가 아프거나, 아프고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이 교회에 옵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일대일을 하고 소그룹 안에서 세워줄 때, 지난 70년처럼 앞으로의 70년도 믿음의 세대계승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성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님으로 훈련받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현재의 137개 소그룹이 내년에는 배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성령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으로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교회는 2만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훈련받은 성도와 교회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성령님의 품에 안기어 그 빛을 발견하고 나오게 됩니다. 가정과 나라의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질서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찬 기운도 품고 살기도 품고, 죄인도 품고, 다 품습니다. 그럴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1~7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랑으로 훈련받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어 드리는 것으로, 물질로도 재능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참고, 환경에 대해서는 견디어 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 4. 4차 (10/11) 다음세대

마음에 새기어 전하는 복음(신명기 6:6~7)

신형섭 교수

- Union-PSCE Ph.D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이 붙여준 것입니다 (행11:26).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우리를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세대인 중고등부의 복음화율은 3.8% 수준으로,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기준 (5%이하)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 변화된 시대 가운데에, 지역적인 수평적 선교를 넘어, 우리는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수직적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부모가 87%로 1위로 응답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다음세대 신앙의 가장 큰 변수는 세상이 아니고, 믿음의 부모세대입니다. 하지만, 자녀들과의 대화에 대해 기독부모에게 설문 결과, 신앙과 상관없는 대화가 94.7% 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지요? 우리 아이들은,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도 회심해야 합니다. 내 자녀의 성적, 대학, 취직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맡은 자인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요, 그가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교리로 들려주기 전에 부모의 등을 통해, 삶을 사는 방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세대가 먼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믿고 선명하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야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의미이며, 말씀하심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손 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를 우리 자녀 세대의 전쟁 위에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성경적 원안입니다. 믿음의 부모세대가 세웠던 그 자리 앞에서 믿음의 다음세대가 세워집니다.

## 5. 5차(11/8) 교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태복음 6: 5~13)

임영수 목사

– 전 영락교회 담임

– 모새골공동체 설립자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훌륭한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기도는 구약의 십계명과도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주기도의 주제는 총6가지인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사항으로 십계명의 1~4 계명에 해당되고, 그 다음 3 가지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십계명의 5~10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실패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돌보고 계시며 창조의 활동을 계속 해 오고 계시는데, 그 창조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 환경과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파트너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면

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대로 음미하면서 참여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욕망이나 자기 이익이 아닌,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피곤한 나그네를 품어주는 인자한 집주인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 사역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고 바뀌면서, 자유하게 되고 치유가 되고 참 인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없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완료이며, 또한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넘어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세계의 전쟁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깊이 음미하는 가운데에, 우리 생애에, 우리 신앙에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정리 요약하며, 말씀 되새김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말씀을 사모함과 아울러 늘 기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Y**



## 70주년 행사 화보 모음





## 70주년을 맞은 감회 간증



김혜선 권사

오늘도 교회에서 주신 70주년 기념 컵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월부터 시작된 말씀 백반과 하반기에 시작한 70일 전교인 기도 릴레이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신 감사한 2024년, 70주년이었습니다.

말씀 백반은 딸 부부와 사무엘하 1~10장을 통독하게 하셨고 손녀도 중학생 친구들과 함께 마태복음 11~18장을 통독하였습니다. 70일 기도릴레이에는 현장 참여가 힘들어 하루의 첫 시간을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통독시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손길이 닿은 독서대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통독하면서 영암교회를 사랑하신 아버님의 마음과 70년 전 창립 초기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버님(김창걸 장로)은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정신적인 안정과 심성의 풍요로움을, 교인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에 “교회가 나의 집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며,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애국의 민족주의자 신앙과 민족정신을 철저히 가르침 받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최운옥 권사)도 신사참배 거절로 옥고를 치르셨고 일제 치하에서 선교사의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께 신혼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평생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 학비 없는 학생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심방을 다니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기도처에서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시며 기도로 새벽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함께 동역자로 믿음의 생활을 하셨고 뜻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1954년 8월 15일 교회 창립하기 전 기도모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매 주일 대광학교 천막교실에서 기도회를 가졌고 기도회 후 교회 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는 부지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대광학교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둘째, 교회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서 11월 14일 송인동 저희집에서 유응기 전도사님 부부, 이종완 전도사님 부부, 김창걸, 최운옥, 김성실 7분이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응기 전도사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흰 백합화를 보라.’라는 제목

으로 설교를 하였고 창립 멤버 모두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바치기로 결단하며 설립 목적을 세웠습니다.

첫째, 복음적인 교회 (보수적이고 성서적이고 말씀 중심의 교회)

둘째, 시대에 적응하는 교회 (시대성과 미래성을 연계시켜 나가는 선도적인 교회)

셋째, 오순절 교회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구제의 공동체, 소유의 공동체)

창립예배를 드린지 한 달 후 전세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 처소가 구해졌고 교회 명을 놓고 기도하며 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암이 실만한 큰 바위란 뜻인데 영암(靈巖)은 신령한 바위란 뜻으로서 영암교회는 신령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복음적이며 영적으로 항상 새로워지고,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란 뜻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창립된 영암교회가 70년을 맞이하며 저의 신앙생활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아세례 1호인 저는, 자녀도 영암교회에서 유아세례와 입교를 통해 세례교인으로 자랐으며 올 가을에는 손녀가 입교를 하며 본인의 신앙고백을 하게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암교회에서 세례를 3대가 받게 되는 감사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나의 성장 과정은 가정, 학교, 교회뿐이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 나의 인격과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인격과 믿음의 성장과 현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대학생일 때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 당시 제자가 7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로 저에게 난 화분을 편지와 함께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기도와 현신과 사랑,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사셨던 것처럼 저 역시 부모님이 주신 신앙심을 본받아 풋대를 향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Y**

## 나의 꿈동산, 영암교회



김대영 장로

영암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영암지 기고 의뢰를 받고 무슨 내용을 적어야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단지 모교회를 오래 섬긴다는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암교회에서의 첫 예배는 1968년 여름성경학교 때입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다니시던 신설동교회에서 유년부에 다니다가 길학철장로님 아버님이신 길리형장로님, 명성교회 장로님이신 김철수장로님 아버님 이신 김국보장로님 그리고 제 아버님이신 김병준장로님, 3가정이 영암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암교회에 오니 유년부 친구들도 많았고 너무나 따뜻한 교회라는 것이 첫 느낌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교가도 열심히 배워서 부르고 당시에는 찬송가가 없어서 찬송가 가사를 종이에 써서 만든 궤도를 보며 열심히 찬송하던 기억도 납니다. 당시 목사님이셨던 황광은목사님의 동화같은 설교 말씀이 재미있었고 지긋히 눈감으시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던 김창걸장로님의 모습은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또한 전교인이 기차를 타고 매포수양관으로 전교인수련회를 다녀온것도 제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중2 여름에 황광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교회나 제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날 온 교우가 슬퍼할 때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황목사님 덕분에 최초로 교회 보이스카우트가 생겨서 많은 영암의 중고등학생들이 보이스카우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제 79대 영암보이스카우트’가 명칭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보이스카우트가 별로 없어서 신설

동로터리에서 영암보이스카우트가 교통경찰 대신 교통정리 봉사도 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덕분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영암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중고등부가 활성화되어 토요일만 되면 초종이에 손으로 써서 등사기로 만드는 주보 만드는 일로 바쁘게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새로 오신 임옥목사님과 사모 이신 이연옥장로님의 정성으로 교회의 성경공부가 활성화되어 중고등부도 성경공부가 생활화 되었습니다. 당시에 청년 대학부도 인원이 많아 대학부와 청년부를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청년 대학부 주축이 셨던 장지우원로장로님, 심상훈원로장로님, 김혜선은퇴권사님, 안혜원은퇴권사님등 많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어린 저는 당시 형·누나로 그분들을 불러서 아직도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장로님·권사님이란 호칭보다 형·누나가 편할 때가 많습니다. 영암의 선배들 덕분에 주변의 안암교회, 미암교회, 동암교회, 신암교회, 성암교회들과 함께 6암컵 체육대회를 중고등부 때부터 함께 한 것도 큰 행사였습니다.

79년에 영암교회가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맞이한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년여를 대광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다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은 당시 모든 영암의 성도들의 감격이고 감사였습니다. 새성전이 너무 좋아 저희 형제들은 모두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의 결혼식 사진은 똑같습니다. 단지 신랑 신부만 다르고 장소도 본당, 주례도 임옥목사님, 똑같은 결혼식 사진입니다.

제게도 믿음의 시련이 많았습니다. 결혼 후 믿음이 약해져 교회도 예배만 드리고 교회의 봉사나 모임은

생각도 안하고 단지 의무적으로 주일이면 교회만 왔다갔다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복잡한 일도 많이 생기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도 많이 떠나고 믿음도 식어지면서 주님과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독실한 불교집안의 아내를 영암교회에 등록시키고 저는 믿음생활도 없고 나태해진 저 자신을 뒤틀어 봤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봉사와 새가족부 섬기는 일을 비롯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말씀하신 성경구절이 생각나서 나 자신의 믿음생활을 반성하고 교회의 모임과 봉사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계기로 20년을 넘게 차량봉사부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내는 지금은 주님께서 다른 일에 쓰시려고 먼저 주님 곁으로 부르셔서 주님 곁에서 열심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신앙생활은 처음은 부모님이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아내가 주님의 곁으로 다시 인도한 듯 합니다.

꿈 같은 영암교회에서의 믿음생활 중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과 고마우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던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큰 선물인 듯 합니다. 저는 요사이 교회에 가면 즐겁고 기쁩니다. 영암교회가 초창기처럼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영암교회처럼 성도들 모두가 행복해하고 서로 사랑해주기 때문입니다.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 서로 위하고 사랑하면서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님들과 함께 영암의 꿈동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영암교회의 사랑의 향기가 점점 퍼져나가 새가족들도 많이 등록되고 지역사회에 꿈을 전하

는 꿈동산으로 발전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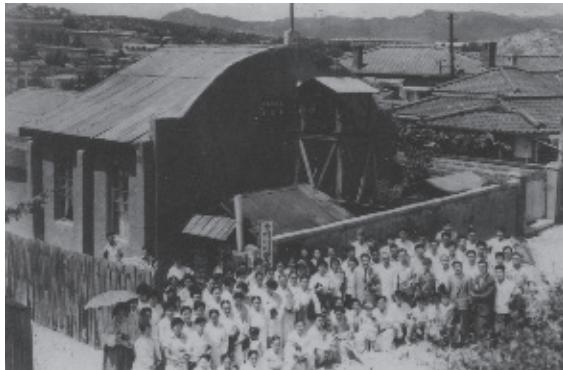
예전에 어린 시절 영암교회에 같이 다니던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영암교회 담임목사님에 관해 물으시더니 영암교회는 참 좋겠다고 하시는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너무나 인품이 좋고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담임목사님이 부임도 안하셨을 때입니다. 그 집사님 말씀으로 본인 친구가 퇴직하고 영락교회에서 경비로 근무하는데 많은 부목사님 중에 언제나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좋은 인품을 가지신 분이어서 많은 부목사님 중에 유일하게 성함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영암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 집사님 친구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영암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큰 영암꿈동산을 만들라고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랜시간 영암의 꿈동산에서 믿음생활을 하다 이젠 얼마 지나지 않아 항존적 직분을 은퇴하게 됩니다. 꿈 같은 영암교회의 믿음생활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남은 믿음의 생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영암의 꿈동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Y

## 주요 연혁 소개

### 1. 창립과 태동기(1954~1970년)

1954. 11. 14 시내 송인동 김창걸씨 댁에서 강홍삼, 유응기, 이종완, 양인실, 김창걸, 최운옥, 김성실 발기로 첫 예배를 드림
12. 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靈岩敎會)로 명명
1955. 1. 2 유년주일학교 개교
1. 16 첫 성찬식과 유아세례식(유아세례 1호 : 김혜선 은퇴권사)
2. 6 중·고등학생회 조직



4. 10 가건물(19평) 예배당 건축 후 이전하여, 첫 부활절 예배드림

5. 12 경기노회 가입

6. 9 첫 제직 임명하고 제직회 조직(남·여 9명)

9. 18 성가대 조직

1956. 1. 15 여전도회 조직

6. 17 김창걸 초대 장로 임직, 명춘원 장로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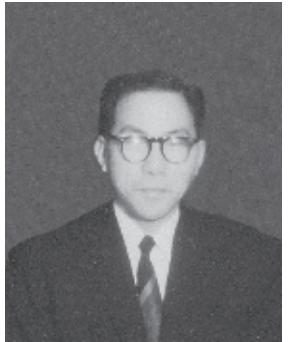
11. 10 당회조직

1958. 1. 5 첫 제직회 개최( 남자제직 12명, 여자 제직 19명)

3. 21 김지석 목사 초대 담임목사 취임(1960. 12. 12 사임)

1961. 1. 22 황광은 목사 2대 담임목사 취임(1970. 7. 15 별세)

1962. 7. 1 신축 예배당 낙성 및 입당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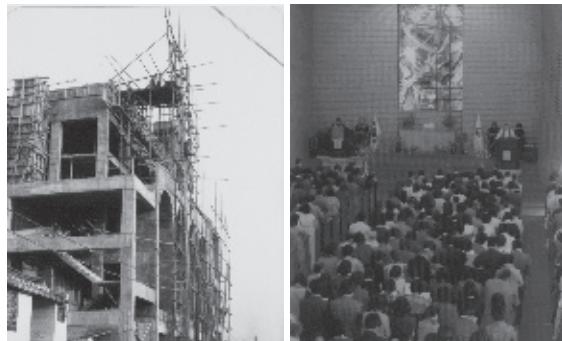


1964. 3. 1 장년 면려회 조직

1964. 11. 15 창립 10주년 기념 현당식 및 창립 10주년 약사 발행



## 2. 성장과 부흥기(1970~2012년)



- 1970.10.18 임옥 목사 제3대 담임목사 취임(1992. 1. 19 원로 목사로 추대, 1999. 10. 20 별세)
1971. 8.29 우신장학회 정관 제정
1972. 7.16 교육관 건축 후 입당(50평 5층)
1975. 7.27 구로구 소재 삼성교회 개척
- 1975.12.28 평신도회를 장년과 청년 평신도회로 분립  
여전도회를 장년과 청년 여전도회로 분립  
청년회를 청년회와 대학생회로 분립
1976. 5. 18 69명의 회원으로 2년제 벤엘성서 연구회를 개강
1977. 6.20 본 교회당 건축기공예배
- 1978.12.17 교회마크를 제정하고 교회기 제작
1979. 3. 4 새 성전 준공식, 입당 예배



- 11.11 교회당 현당식 거행
- 1980.10.19 벤엘성서연구 제1기 37명 수료
- 12.14 벤엘성서연구 제2기 34명 수료
1981. 4.16 제1기 애기학교 개교(매주 목요일 8주간)
1981. 7.19 주일 낮 예배를 3부로 나누어 드림
- 11.15 중년여전도회 창립
1982. 2.21 벤엘성서연구 제3기 31명 수료
4. 1 유치원과정 주간학교 개교
1983. 2.25 포일리교회와 호평교회 개척
3. 1 중등부와 고등부 분리
- 11.13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제1~제4로 분리
1982. 4.15 벤엘성서연구 제4기 52명 수료
1984. 6.22 교회본당에 파이프오르간 설치
1985. 4.25 양문염광교회 개척
1986. 9.21 교육관 완공 및 준공예배
1987. 2.28 영암유치원 북부교육구청으로부터 인가
- 5.31 벤엘성서연구 제5기 40명 수료
1988. 2.24 구미공단에 개척한 광림교회 신축대지 구입 기증
- 9.12 제73회 교단 총회에서 임옥 목사총회장으로 피선
- 12.31 브라질 상파울로 소재 동양선교교회와 자매결연



1989. 5. 11 장항공단에 위치한 대성교회에 성전건축대지 구입 기증

1989. 11. 28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 영암라우레스드교회 현당

1990. 9. 16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 이원경 선교사 파송

1991. 4. 21 예수초청 영암잔치(결신 1,667명)

1992. 1. 19 임옥목사 원로목사 추대

4. 21 서정호 제4대 담임목사 부임(2012.6.24. 사임)



7. 5 벤엘성서연구 제6기 44명 수료

12. 8 육군 제5763부대 천군교회 건축봉헌

1993. 2. 20 논산훈련소 장병 3,049명 합동세례식 거행

11. 26 4부여전도회를 8부여전도회로 분립

1994. 5. 20~25 모스크바 영암교회 창립

7. 10 벤엘성서연구 제7기 49명 수료, 속 벤엘 1기 47명 수료

9. 8 크로스웨이 성경공부 개강, 제1기 전도폭발훈련 시작

11. 13 창립 40주년기념 초청잔치 및 기념예배

11. 22 창립 40주년기념 경주총효교회당 현당

1996. 1. 29~28 제1차 성지순례

9. 24~10. 5 제2차 성지순례

10. 4 케이블TV 아름다운 우리교회 – 영암교회편 방영

11. 17 영국 일링한인교회와 자매결연

11. 24 남선교회 분립(4개→8개)

11. 29 여전도회 분립(8개→13개)

1997. 6. 1 벤엘성서연구 제8기 수료

10. 6 교회묘지구입(진달래공원 묘지 내 680평)

11. 4 화요형제예배 신설

1999. 2. 22~6. 4 성경통독 101일 특별새벽기도회(본당)

9. 28 제기 바나바 훈련

11. 22~27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제104회)

2000. 10. 23~28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제116회)

2001. 4. 16~20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제120회)

9. 9 제기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

10. 31 창립50주년기념 80연대 고왕교회 현당예배

2002. 1. 23~2. 2 청년단기선교(말레이시아)

2. 17 김삼열 이성란 선교사 파송예배(연변과학기술대학)

4. 15~20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제129회)

2003. 3. 12 제1기 제자훈련 시작(여제자 3개반, 남제자 1개반)

2004. 5. 10~15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제154회)

10. 17 창립50주년기념 교회학교 종합발표회

11. 6 창립50주년기념 음악제

11. 14 창립기념주일, 총동원전도주일, 창립50주년 기념 증개축 완공 감사

2005. 5. 30~6. 4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제165회)

2006. 5. 22~26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제176회)

2007. 5. 28~6. 1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제188회)

7. 8 장영배 · 김사랑 선교사(키르기스탄)

2010. 5. 24~28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제220회)

2011. 3. 7~11 중국 광서성 16개 교회 현당예배

### 3. 현재와 미래(2012-현재)



2012. 6. 24 서정호담임목사 은퇴 및 송별예배

2012. 7. 1 제5대 유상진 담임목사 부임

2014. 5. 2~10 창립 60주년기념 네팔단기의료선교(유상진목사 외 18명)

11. 9 창립 60주년기념 감사예배 및 홈커밍데이

11. 23~12. 14 창립 60주년기념 그 은혜의 나눔, '밀알현금' 실시

2016. 2. 4~9 에티오피아 단기선교(유상진 담임목사 외 19명)

2018. 9. 21~28 북한접경지역 해외선교훈련(30명)

12. 15 교육관 리모델링공사완공 감사예식

2019. 2. 24 카페 로뎀 개점

2021. 10. 1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시작

2022. 1. 2 영암교회 1인 1소모임운동 시작

11. 6 장영배 김사랑 선교사 파송식(레바논)

2023. 2. 19 황광은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10. 5 본관 환경개선공사

2024. 2. 18~5. 27 창립 70주년 말씀 백반 성경일독 실시(100일간)

2024. 8. 19~11. 10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기도 릴레이(70일간)

11. 10 창립 70주년 감사예배 **Y**





##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김현숙 성도 (유치부 최하율 어머니)

안녕하세요. 6살 이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김현숙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20대 들어서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하나님을 마음 속으로만 찾고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도는 드렸으나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동딸을 키우면서, 아이가 6살이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과 함께 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사실 힘든 일입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도 받고,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죠.

먼저 유치부에 등록한 서현이 엄마와 서현이의 도움을 받아 저희도 영암교회 유치부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예배에 다니면서 점점 자신감도 들고, 낯가림도 조금은 나아지는 저와 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가기 힘들어서 일요일만 되면 안 간다고 울던 딸이었는데 최근엔 혼자서도 씩씩하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딸을 보는데 너무 기특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름성경학교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참여는 저 뿐인 거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신다고 느꼈는데, 하율이도 너무 좋아하고 신나하고 저하고 단둘이는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해서 기뻤습니다. 피자도 같이 협동해서 만들고 토끼랑 염소 밥도 주는 활동이 재밌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하고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유치부에서 아이를 따라 몇 번 예배를 드렸었는데, 전 솔직히 재밌었어요.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아직은 하율이가 말씀이랑 성경은 어려워 하지만 그래도 잘 다녀서 기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어요.

저랑 하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굳건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하율이는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인 하율이의 하나님인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Y**

# 예수님 사랑해요!!



초등1부 이시윤

오늘은 드디어 여름성경학교 날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 티를 입고, 일주일 전부터 쟁겨놓은 가방을 들고 교회로 갔다. 계속 내린 비 때문에 물놀이를 못 할까봐 걱정했지만, 작년에도 물놀이 시간에만 비가 그치고 해가 떠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걱정은 안 하기로 했다. 교회에 도착해서 등록하고, 예배로 성경학교를 시작했다.

너무 좋아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봉봉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멋쟁이 선생님과 레크리에이션도 즐겁게 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가장 기대했던 물놀이 시간이 다가왔다. 친구와 제일 먼저 뛰어가 체조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워터슬라이드도 많이 타고 너무 재미있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녁도 먹고 나니 사실 조금 졸렸지만, 꾹 참고 퀴즈쇼에 참여했다. 간식을 먹고 난 후, 어린이 기도회 시간이 되었다. 어쩌지… 다시 졸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집중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은 잘 몰라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마음과 그동안 잘못들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이 생각이 났다. 잠은 다 사라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다. 안 울려고 엄청 노력해도, 눈물은 계속 흐르기만 했다. 나는 살짝만 넘어져도 울고, 손에 가시가 박혀도 아프다고 징징거리는데, 예수님 손과 발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도 너무 아팠다. 저번에 엄마가 기도하다가 우셔서, 내가 왜 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엄마 만나주셔서 그래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걸까? 이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까? 마음이 이상하기만 했다.

그렇게 성경학교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대광고 등학교로 가서 피구도 하고, 시상식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나에게 조금 특별했다.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윤이가 되고 싶다.

예수님 사랑해요!!



##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초등2부 신이언

저는 이번 여름에 열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로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첫날 학교 수업으로 인해 늦게 도착하게 되어 레크레이션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공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공과가 끝나고 맛있는 라면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처음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되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유독 더운 하루 동안 흘린 땀을 깨끗이 씻는 시간도 가졌고, 땀을 씻고 나니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물놀이 시간이었습니다. 오션월드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유수풀에서 수영도 하고, 시원한 물속에서 물싸움을 하며 정말 즐거웠습니다. 덥던 날씨도 잊을 만큼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중간에 먹는 간식도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물놀이 후에는 모두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공과공부 시간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공과 내용은 1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2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3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4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와 공과공부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름성경학교 공과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퀴즈를 풀면서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잊지 않으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며, 겨울성경학교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Y**

#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시간



중등부 장시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암교회 중등부 1학년 장시예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수련회에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워터파크에서의 신나는 물놀이로 시작된 수련회는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재미있는 게임과 맛있는 식사와 간식으로까지 이어져 정말 잘 참석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좋았던 것은 예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배시간과 찬양하는 시간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신나게 뛰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어색하기는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등부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으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등을 보이며 돌아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보다 친구가 우선이었고 작은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불평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주일날에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날들도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찬양을 신나게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찬양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이번 중등부 여름 수련회는 모든 것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



## 내 인생의 최고의 수련회



고등부 한지수

이번 수련회는 학생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수련회였기에 더욱 기대감을 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로 가는 길부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는 예배를 드리며 몸의 피로가 사라지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교회에 다닐 때처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다가,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을 잊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대부분의 수련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결국 이전 수련회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예배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막 집회인 두 번째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고, 찬양을 부르며 신나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직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기도의 내용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교회란 곳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을 원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혼잣말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혼자 기도하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 목사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점점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교회가 저에게 선물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님께 투정부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나를 위로해 달라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30분간의 기도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고, 진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설움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 뒤로는 신나는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울컥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유시간에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며 다시 한 번 내가 느낀 하나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며, 언제나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수련회에서 돌아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내 인생의 한 획을 그은 최고의 수련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

#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청년공동체 장영훈

안녕하세요 청년공동체 장영훈입니다.

이번 청년공동체 여름 수련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와 인근을 중심으로 홍대 수상한 거리 워십센타에서 시작하여, 개포동 호프트레이닝 센타, 평촌새중앙교회 내 자리한 얼반데일로컬센타, 마지막으로 찬양팀 제이어스에서 운영하는 종로 자이온 버거를 방문하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한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기독교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사실 저 자신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수련회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반데일로컬센타에서는 청년 창업 벤처 기업 육성을 통해, 헬스장 교회에서는 운동을 통해, 자이온 버거에서는 음식을 통해 복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울 도심 투어를 진행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며, 또한 전도를 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저와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정표를 이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숙한 신앙인이지만 지향해야 할 지점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위해 풋대를 향하여 달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간증문을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Y**

## 노회 소개 및 부노회장 당선 소감



최성기 장로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께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서울북노  
회 83회 정기노회에서 장로부  
노회장으로 선택받은 최성기  
장로입니다.

총회 산하 69개 노회 중에서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지만, 전통이 있고 영적 에너지  
가 넘치는 노회로 평가 받고 있는 공동체에서 부노회  
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에 더  
큰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을 위해 충실히 마음으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유교문화의 뿌리가 깊은 시골에서 태어나 미  
션스쿨인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  
습니다. 믿음의 배경이 없었던 사람이 신앙인으로 성  
장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  
약한 죄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더 귀한 섬김의 자  
리에 서게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표  
현할 길이 없습니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회 원로장로님들의 권면과 일부 목사님들의 권  
유의 말씀을 뿌리치지 못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며 고  
민한 끝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치열한  
경선과정을 통해 택함을 받았기에 제 자신뿐만 아니  
라 영암교회의 위상과 체면을 지키게 된 것 같아 인간  
적인 생각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돌아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뜻에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  
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  
정 등 수많은 사회 현상들로 인해 창조질서가 부정되  
는 시대적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통합측 교단소속  
9,400여 교회중 50% 이상이 자립이 어려운 교회로  
분류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세대가 믿음  
안에서 신앙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가기 어려  
운 사회적 현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때에, 노회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노회를 위해  
동역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거룩한 삼겹줄  
이 되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단 헌법에 노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된 여러  
지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  
징을 위해 노회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울북노회 산하 모든 교회가 서로 협력하  
는 가운데, 노회의 목적에 따라 건강한 공동체가 계승  
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 자신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시  
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사역의 시야를 넓혀 도움이 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  
별히, 부족한 부분은 더 공부하고 채워가며 사역을 잘  
감당해 가고자 합니다. 모든 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  
록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위해 애쓰시고 힘이 되어 주신  
영암교회와 유상진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  
웅태 서기장로님, 송회락 은퇴장로님, 그리고 적극 지  
지해 주신 당회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Y**

## 노회 골든벨 후기



고등부 남궁솔

평소와 같은 주일 예배 후, 반 모임 시간 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오셔서 “골든벨 참가 할 사람~.” 하고 부르시는 거였다. 평소에도 할 일이 많았던 나는 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고등부 회장이어서 선택권 없이 참여하게 되었다.

목사님께서 평소에 고등부에서 하던 골든벨보다 훨씬 쉬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하라고 하셨다. 기출 문제지도 나오니까 큰 걱정없이 준비하라고 하셨다. 실제로 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다가 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급하게 기출 문제를 꺼내보았다. 다행히 평소 가족예배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얻은 기본 지식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계속 보다보니 군데군데 처음보는 것만 같은 내용이 있었다. 처음 기출 문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여서 ‘뭐야? 왜 이렇게 쉬운 거지?’하면서 자만했었는데 계속 보니까 ‘확실히 사람은 자만하면 안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평소 성경을 읽으면 바울서 신이나 시편을 읽었는데 오랜만에 다른 성경 파트를 읽자니 괴로웠다. ‘아 평소에 좀 읽을걸.’ 후회를 뒤로 하고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다보니 어느정도 눈에 익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날 힘들게 했던 고넬료와 간다계가 생각이 난다. 두 인물 덕분에 성경지식이 늘 수 있었으니 큰 감사를 느끼고 있다. 어느 정도 다 외워진것 같은 기분으로 대회에 나갈 수 있었다.

대회 날 아침, 솔직히 자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한가지 확실한 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대회 장소로 가보니 오! 나보다 어린 중학교 친구들이 종이에 코를 박으면서 외우고 있었다. 마음이 움츠러 들었다. 마음속으로 ‘나보다 훨씬 낫네.’ 생각했다.

골든벨이 시작하자 걱정은 많이 됐지만 긴장은 안됐다. 그냥 아는 문제가 나오길 바랄뿐이었는데 다행이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20문제 넘어서까지는 수월하게 풀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자마자 우리의 뒤통수를 강타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암송 구절 문제였다. 기출문제만 해도 벅찼던 우리에게 암송 구절이란 넘을 수 없는 산이나 다름없었다. 당연하게도 결과는 처참했다. 그렇다해서 우울해 있을 수 없었다. 잘 마치고 골든벨 채점 전까지 준비해주신 레크리에이션을 즐겁게 즐기다 보니 채점 결과가 나왔다. 같이 갔던 보석이와 내가 나란히 2,3등을 차지했다. “오?” 얼떨 했지만 그래도 수상을 했으니 기쁜 마음으로 나와 상을 받았다.

다사다난했던 골든벨이 끝났다.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다. 물론 5일 전부터 급하게 시작하기 했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감사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며 살았다. 나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해진 것에 있어서 감사했다. 더 나아가 같은 고등부 학생들끼리 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다. 물론 모두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등수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노회 성경 골든벨 대회를 마치고



고등부 한보석

영암 고등부 1학년 한보석입니다.

북노회 성경 골든벨에 참가하여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성경 골든벨은 종암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나가게 된 계기는 고등부에서 임원 2명이 골든벨에 나가기로 했고 그때 임원인 친구랑 같이 나가면 좋은 경험이 될 거 같아 지원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때 교회를 잘 나오질 않았는데 중등부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며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골든벨을 참여함으로써 저 자신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골든벨 장소에 가서 대회를 시작하려고 들어가자 많은 학생들이 골든벨 기출문제를 프린트하고 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걸 보니 저도 뎅달아 무척 긴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20 문제 정도였고 맞춘 개수로 순위가 산출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를 기출문제를 주로 꼼꼼히 보고 주관식 문제는 조금 외운 다음 골든벨에 참여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학교 일정과 겹쳐서 엄청 꼼꼼히 준비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하니 부담감보다는 예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골든벨 문제를 풀 때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정답이 생각나고 아는 문제도 많이 나와서 결과가 좋았던 거 같습니다. 결과로 2등이라는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2등이라는 것에 기분이 좋았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짐작할 수 없이 거대해서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간 것이 좋았습니다.

골든벨이 끝나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추운 겨울 가운데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Y**



## 세례자 간증



중등부 안명엽

안녕하세요. 중등부 안명엽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저의 신앙심은 마치 화분 속의 씨앗 같았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건 늘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 조금은 목적 없이 그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중등부 여름수련회를 계기로 영암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특별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시간에 친구들이 옆에서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뿌려졌던 믿음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줄기가 뻗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등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잘 들릴 뿐만 아니라 눈에도 들어오고, 마음과 생각에 깊게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입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입교를 받아야 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입교를 받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난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가 저에게는 신앙의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교육을 마치고 입교를 받고 난 이후부터 저는 이전에 삶에서 지었던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로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활짝 핀 꽃처럼 신앙의 향기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 귀하고 유익한 영암학당으로 오세요

## – 수요 영암 학당 –



서경희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치 압축 파일처럼 풀어도 풀어도 읽을 때마다 또 다른 것을 보여준다. 성경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아가는 만큼 조금씩 이해와 사고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동시에 믿음도 조금씩 자랐다. 하지만 내가 안다는 폭은 얼마일까 아마도 병아리 눈물 만큼이나 될까. 그래서 영암 학당을 찾는다.

새로운 강의가 시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강사 교역자들의 열정이다. 도저히 4강으로는 풀 수 없는 많은 분량의 강의를 열과 성의로 자료를 준비하시고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매번 감탄한다.

김영한 전도사님의 '통하는 사도행전 30년'은 매우 신선한 강의였다. A.D.33년 십자가 사건부터 A.D.64년 로마 대화재 사이에 쓰였던 성경들과 사건들을 '(전도인 죽이는) 산헤드린 공회 결정' 대 '(전도인 세우는) 예루살렘 공회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셨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부터 바울의 4차전도 여행까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1차에서 5차까지 연대별로, 사건별로 두 공회에서 내려졌던 결정들을 그리고 그 영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사도행전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 강의였다. 그 당시의 사회상과 분위기를 들으며 사도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 일은 너무 재미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신에 감사드린다.

서예림 목사님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강의는 명쾌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총 129개의 질문과 답으로, 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2부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그리고 3부 <우리의 감사함에 대하여>로 구성되어 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 목사님이 잘 정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강의해 주셨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믿어야 하는지 질문한다면, 조리 있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이 교리문답을 배우면서 막연하던 대답이 구체화 되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 강의에 첫 질문과 답이었다.

제1문 :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

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질문과 답을 들으며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런데 난 하나님 없이 나로 살 때가 더 많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과 답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어졌다.

이 강의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두리뭉실한 교리가 분명하게 정리되었다.

최석빈 목사님의 ‘간추린 이스라엘 역사’ 강의는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 방대한 자료를, 거의 책 한 권 분량으로 준비해 주셨고 강의 때마다 한시간을 쉴 틈 없이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셨다. 그래도 워낙 많은 내용이라 4강으로 모자라 한 시간을 더해 총 5강으로 족장 시대를 시작으로 로마의 지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대별로 설명해주셨다. 구약 전체를,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매우 짧은 시간에 알기 쉽게 한번에 정리해 주셨다.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귀한 자료들은 앞으로 구약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영암학당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년에는 어떠한 강의가 개강 될지 벌써 기대가 된다. 주일 강의는 찬양대연습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수요 강의는 열심히 참석 하려 한다. 영암의 많은 교우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항상 열 강해 주시는 영암학당에 명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늘 성심으로 영암학당을 섬겨 주시는 서동화 집사와 김수연 권사에게도 감사드린다. **Y**



## 지단체 찬양대회







#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치며...

## 반영환 성도

처음 일대일 제자 양육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새 가족 교육의 마지막 즈음이였습니다. 그동안 생활이 바뀌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며 섬겼지만 새신자가 아니므로 교육을 새롭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암교회에 등록하고는 자연스럽게 믿었던 사람이든 아니든 새 가족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새 가족 교육을 초심의 마음으로 임하였는데 기노창 집사님께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 가족 교육이 끝나자마자 일대일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16주의 과정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렵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주일 예배의 유상진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고 그 마음들은 기쁨과 기대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웅태 장로님께서 저를 양육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장로님과의 일대일 양육이라 처음에는 조금은 경직되었으나, 첫 만남에서 어려움과 부담감은 사라지고 장로님의 인자하심과 친근하심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처음 시작하는 [만남 :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교육을 받게 되면서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고는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양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순간순간 역사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일대일 양육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보낸 16주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배우자인 장은미 성도와 같은 시기에 일대일 양육을 받게 되면서 저희 가정은 세상의 것과 세상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말씀 안에서의 교제와 공부 그리고 나눔으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더욱 많이 체험하고 가정의 온도와 공기까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직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일대일 양육 과정을 준비하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며 보내고 있던 중에 “혹시 목사님 되시려는 건가요?”

라는 동료의 물음에 웃으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동료와 교제를 나누는데, 순간 성령님이 역사 하심을 느꼈습니다. 이 동료를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어 주신 영혼이구나, 나를 사용하여 일하심을 느끼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읽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어 주시고 제 삶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며 성령님의 능력에 기대는 것만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양육은 제 삶의 방향과 가치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하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주일의 말씀, 새벽 기도, 일대일 양육. 서로 다른 시간과 말씀이지만 신기하게도 순간순간 제가 고민하고 필요한 말씀들을 너무나도 알맞게 항상 해주시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기적은 현재 없지만 지금도 제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요즘 주변 사람들과 모임에서 선포합니다 “저는 이곳에 당신들을 전도하기 위해 왔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일대일 양육은 저를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처음이 되었습니다.

일대일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김웅태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영암교회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일대일 양육을 받게 하시며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Y**



## 삶의 열쇠이신 예수님

###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을 마치며-



권정연 성도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동반자과정을 수료한 권정연입니다. 저는 17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 큰 아이 출산과 동시에 안암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암유치원에 다니게 된 것을 시작으로 아이들과 함께 주일예배만 섬기며 교회 등록을 미루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초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영암교회 등록과 함께 말씀백반 쉐프 신청을 시작으로 새가족 교육을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풍성한 은혜로 7주 동안 한 주도 빠짐 없이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고, 곧바로 너무도 당연하게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말씀과 교육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하겠다고 했지만, 그 마음은 아마도 저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기에 그저 성경에 대한 배움이 먼저 필요하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은 정말 한 주 한 주 거듭 할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매 순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간의 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교만했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예비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고

백하면서도 항상 불안했고 제멋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저를 세상속에서 회심하게 하여주시고 다시 새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16주 동안 진행된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은 16주가 이토록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준비하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위로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붙잡아주시며, 아이들 재우고 밤마다 온전히 주님과 깊게 만나는 시간을 통해 저의 믿음도 더욱 회복되고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 교육을 통해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운행하시는 안전한 배에 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어느덧 제 삶 가운데 힘듦과 고난의 눈물은 회개와 죄송함의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깊고 크신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을 느끼며,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통해 저의 신앙 습관을 바꾸고, 제 안에 여러 가지 교만하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으며, 걱정과 염려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를 이제는 많은 성도들과 나누고 싶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보기와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Y**

# 내 영혼의 온돌방

##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과정을 마치며-



서여정 성도

듯 살았습니다.

20여년간 제가 열심히만 하면 돈, 명예, 가정 등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집과 회사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육아와 사업에만 매진했지만, 달콤한 결실은 잠깐뿐이었고 언제나 새로운 문제와 고민거리로 젊은시절의 패기는 점차 사라져가며 해를 거듭할수록 제 마음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던 마음이 투영된 듯 질병이 찾아와 병원 치료를 시작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작정 찾은 영암교회에서는 지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성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매주 반갑게 맞아주시는 사역자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4년 4월부터 시작한 ‘일대일제자양육’은 처음 교회를 다니는 저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체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감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양육자이신 허유미 집사님과의 16주의 교육은 교제, 나눔, 은혜의 시간

이 되었습니다. 교재의 답변은 맞고 틀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어린 믿음이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신 허유미 집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나누고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당장 죽을 것같이 힘들어 하나님을 찾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미지근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데, 교육과 교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식지않고 뜨끈하게 데워주는 온돌방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제는 동반자 과정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일대일제자양육 프로그램은 예전에 수료하신 분들이 동반자 과정을 통해 양육자로 세워진다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이 믿음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결단하여 봅니다. **Y**



## 활짝 열린 볼링문화교실



기노창 안수집사

안녕하세요 기노창집사입니다.

2024년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말씀 백반’을 통해 매일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말씀 속에

서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감이 깊어지는 시간이었고, 70인 기도 릴레이 ‘기도로 숨쉬다’를 통해 영암교회에 속해있는 여러 소그룹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교우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문화교실 중 볼링문화교실이 창단되었습니다.

새가족부를 섬기다보니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교육을 받고 등록 후 교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다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아쉬움이 있었고,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분이 신앙이 없어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간절한 가정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교회에 모시고 나와 지단체와 각 부서를 소개해 줘도 이미 친숙한 교인들의 그룹에 들어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과 새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을까 몇몇 새가족 부원들과 이야기하다가 문화 교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20년 전에도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계신 집사님의 다행방에 속한 아내를 통해 다행방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믿지 않는 저를 위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자연스러운 식사 교제

를 하다가 친밀감이 생겨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는데 새가족들에게도 문화교실이 좋은 믿음의 통로가 될거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미 좋은 문화교실이 많이 있음에도 저처럼 교회라는 문턱이 낯설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함께 웃으며 친밀도를 쌓을 수 있는 문화교실을 새롭게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가족부 박재혁 목사님께서 볼링은 어떠냐며 요즘 젊은 분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함께 어울리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볼링문화교실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힘입어 영암볼링 문화교실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창단하려고 보니 볼링을 접한 지 15년 이상이 되어도 볼링장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었기에 막막한 저는 아내와 매일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근처에 저렴한 볼링장을 찾게 하셨고, 정기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교인들과 만남이 있을 때마다 볼링문화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볼링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리서치 과정을 통해 기술고문으로 돋는 손길과 재정적 찬조를 받게 하셨고 결국 첫 정기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2024년 9월 8일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볼링장 전체 대관으로 교회 분들만 모시고 창단식을 가졌던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와서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함

께 자리해주셔서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볼링을 치면서 이렇게 많이 웃어 본 적이 처음이라는 분들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던 분들과도 함께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나누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두 번의 전체대관을 하며 사춘기 이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정도 생겨나고, 볼링장에서 만난 타 교회 어떤 회원분이 영암볼링문화교실을 보며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이런 문화교실을 만들어 전도와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며 저희 볼링문화교실을 응원해주시기도 하셨고, 평일에 볼링을 치다 옆

레인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생겨 볼링문화교실을 허락하신 주님께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과 운동을 통해 소통하며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친숙해져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드러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세상과 새가족들에게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영암볼링문화교실의 정체성입니다.

성전된 우리 몸을 운동으로 건강하게 지키며, 함께 하는 지체들과 맘껏 웃으며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교우들이 계시면 영암볼링문화교실로 오시길 초청합니다! **Y**



## 아틀리에 메멘토 모리④

# 후회없는 인생의 조건



강진구 안수집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박막례 할머니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노인 유튜버다.

박막례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 '코리아 그랜드마(Korea Grandma)'의 구독자수는 2024년 12월 현재 116만 명이 넘는다. 처음에는 치과에 가는 할머니의 메이크업 하는 모습을 찍어 올린 것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지금은 할머니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해프닝들을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6년 전에 제작한 '…막 대충 만드는 비빔국수 레시피'는 조회 수가 무려 1,123만 회를 넘겼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레례(reii reii)'란 뷰티 브랜드를 선보여서 화장품 마케팅에도 나섰다.

박막례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을 주목한 사람들은 비단 국내에만 있지 않았다. 2019년 4월, 유튜브 CEO 수잔 워치스키는 박막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직접 내한하여 할머니가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준 김밥을 먹으며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가 하면, 5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리는 개발자 지향 컨퍼런스 '구글 I/O'에 초청을 받아 구글 CEO인 선다 피차이를 만나기도 했다. 이 정도면 단순히 한 실버 유튜버의 열풍을 보여주는 예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분석과 전망을 필요로

### 박막례 할머니가 후회하는 삶

70대에 부침개처럼 확 뒤집힌 인생이 있다. 그것도 상상 할 수 없던 멋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평생을 밥장사, 떡장사, 리어카 과일장사 등 1년에 딱 한 번 명절 빼고는 쉬지도 않은 채 안 해 본 일 없이 살아 왔다는 올해 나이 일흔여덟의

하는 사회적 사건이 될 만하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과 스마트폰의 폭발적 이용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문화의 혁명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박막례 할머니가 한국의 청춘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비록 할머니 특유의 욕설이 섞여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 누구에게나 납득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지혜가 담겨 있다. 2019년 세계의 유명 유튜버들이 초청된 구글 컨퍼런스에 참석한 박막례 할머니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미국인 할머니가 바리스타로 일하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커피를 만들어주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금치 못했다. 비록 본인은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몰라 답답했지만 미국에서 경험한 새로운 세계는 박할머니의 인생을 되짚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젊었던 시절 자신은 커피 만드는 것도 배우고 싶었고 영어도 배우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편장을 주며 그런 것 해서 뭐하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는 포기를 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때 영어를 배웠다면 세계의 유명인들과 얘기도 나누고 자신이 만든 커피도 대접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았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결론은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라는 것'에 있었다.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좋은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남의 말에 휩쓸려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박할머니는 힘주어 말한다. 왜냐하면 세상도 인생도 언제 뒤집어질지(새로운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이 70이 넘어서 뒤집어졌고, 코로나19 사태가

을 줄 누가 알았겠냐며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삶, 즉 ‘자신의 장단에 춤추는 삶’을 살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박막례 할머니가 ‘남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은 노년의 시기뿐만 아니라 죽음이 임박했을 때 느끼는 인간의 후회와도 연계되어 있다.

말기 환자들을 돌보아왔던 호주 출신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Bronnie Ware)의 회고록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The Top Five Regrets of the Dying)〉은 32개의 언어로 번역, 100만 부 넘게 판매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감동과 변화를 주었다. 이 책의 원제목은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될 때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를 앞세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으로 수정해서 제목을 달았다. 즉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일들을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감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말하는 말기 환자들이 죽기 전 후회하는 5가지에 귀를 귀울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내 뜻대로 한 번 살아봤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한 번 살아보고 싶다.

#### 2. 일 좀 적당히 하면서 살 것을

돈 버느라 정작 가족에 대해 소홀했다.

#### 3. 내 기분에 좀 더 솔직하게 살았다면,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야 했고,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

요했다.

#### 4. 오래 된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낼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야 했다.

#### 5. 좀 더 내 행복을 위해 도전해 볼 걸

당신은 행복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고,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었다.

결론은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려서는 부모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랬고, 성인이 되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 위치 운운하며 체면 때문에 못했고, 늙어서는 나이 탓 하며 자식 눈치 보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창1:26)란 성경의 사실 속에는 인간 자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롬8:39), 남이 아닌 자신 삶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는 자유로운 존재(마25:14-30)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만일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 “너는 왜 베드로처럼 살지 못했니?”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 너의 삶을 살았니?”라고 물을 실 것만 같다. **Y**



## 새가족 소개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임 미 희  
(3040)



유 재 림  
(3040)



김 미 숙  
(3040)



강 유 선  
(6여, 제기중구)



김 미 연  
(3여, 삼익2)



정 동 규  
(3남, 보문3)



김 진 환  
(3남, 안암1)



박 영 미  
(5여, 안암1)



이 은 서  
(3여, 대광3)



박 병 인  
(2남, 동소문)



김 정 숙  
(4여, 동소문)



정 윤 희  
(3여, 보문5)



권 현 환  
(3040)



권 은 혜  
(3040)



이 은 혜  
(3040)



박 복 수  
(3여, 삼익2)



안지원  
(6여, 일산)



이향자  
(2여, 안암9)



김도환  
(3040)



조가영  
(3040)



변영칠  
(아브라함회)



박성수  
(아브라함회)



유규식  
(아브라함회)



임창길  
(아브라함회)



박신영  
(청년)



강성현  
(청년)

[2024년]

장로세미나 6월 21일(금)–23일(토), 팀수양관

6. 25 기념주일 6월 23일(주일)

교육부 교역자 수련회 6월 28일(금)

찬양대 헌신예배 7월 7일(주일)

새가족 환영오찬 7월 21일(주일)

안수집사헌신예배 8월 4일(주일)

예닮동산 8월 4일(주일)–7일(수)

우신장학금전달식 8월 18일(주일)

창립 70주년 70일 전교인 기도릴레이 시작 8월 19일(월)–11월 10일(주일) 70일간

교육부여름사역 보고예배 9월 1일(주일)

창립 70주년 특별사경회 3차 9월 6일(금) 소그룹, 강명옥 전도사(국제제자훈련원 부원장)

구역다락방남녀큐티소그룹 리더모임 개강 9월 7일(토)

세례입교식 9월 29일(주일)

소그룹 리더수련회 10월 5일(토), 부암동 CCC센터

모든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 · 성찬식 10월 6일(주일)

창립 70주년 특별사경회 4차 10월 11일(금) 다음세대, 신형섭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추수감사주일 · 찬양한마당 10월 13일(주일)

자립대상교회 방문 10월 15일(화) 영주노회 예천지역 3개 교회(성평, 금릉, 수월교회)

늘푸른대학 가을소풍 10월 24일(목)

이연옥 명예장로 1주기 추모예식 11월 3일(주일)

창립 70주년 특별새벽기도회 11월 4일(월)–9일(토)

창립 70주년 특별사경회 5차 11월 8일(금) 기도, 임영수목사(모새골공동체 설립자)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 · 숭실OB합창단 초청 창립 기념음악회 11월 10일(주일)

창립 70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12월 8일(주일) 소프라노 이해원, 테너 윤서준

교육부 성탄축하발표회 12월 22일(주일)

성탄절 예배 · 유아세례식 12월 25일(수)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화)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kr>

